

# 하루에 3건꼴... 무섭다, 급증하는 성범죄

## 경찰 작년 근절 총력전 불구 광주 19%·전남 30% 늘어 도심지역 증가세 뚜렷... 범죄 예방 총체적 재점검 필요

광주·전남 밤거리가 불안하다. 경찰이 지난해 성폭력 사건을 '4대 사회악(惡)'으로 규정, 근절에 총력을 펼쳤음에도 감소는 커녕,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강간 등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대부분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경찰의 범죄 차단·예방 대책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전남 성범죄 30% 급증, 뒤흔다=전남지방경찰청이 내놓은 '성폭력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835건으로, 전년도 630건과 비교해 32%(205건)가 늘었다. 특히 강간·강제추행·장애인 성폭력·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모두 증가했다. 성폭력 전담 수사대를 만들고 홍보 예산에 수천만원씩 쏟아부었지만 정작 현장 치안 예방 활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간의 경우 2012년 298건에서 지난해 317건으로 6% 증가했고 강제추행의 경우 지난 2012년 257건에서 지난해 412건으로 60% 급증, 전체 성폭력 범죄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장애인 성폭력도 지난해 73건이 발생, 전년도(41건)와 비교해 56% 증가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도 지난해 24건이 발생, 2012년(21건)에 비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목포·여수·순천 등 도심 지역 증가세가 뚜렷해 적극적인 치안 예방 활동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목포의 경우 지난 2012년 115건이던 성폭력 범죄가 지난해 194건으로 폭증했다. 강간(2012년 54건→2013년 79건)·강제추행(“ 47건→“ 100건)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 여수는 129건(2012년)이던 성폭력 범죄가 135건(2013년)으로, 순천도 103건(2012년)에서 107건(2013년)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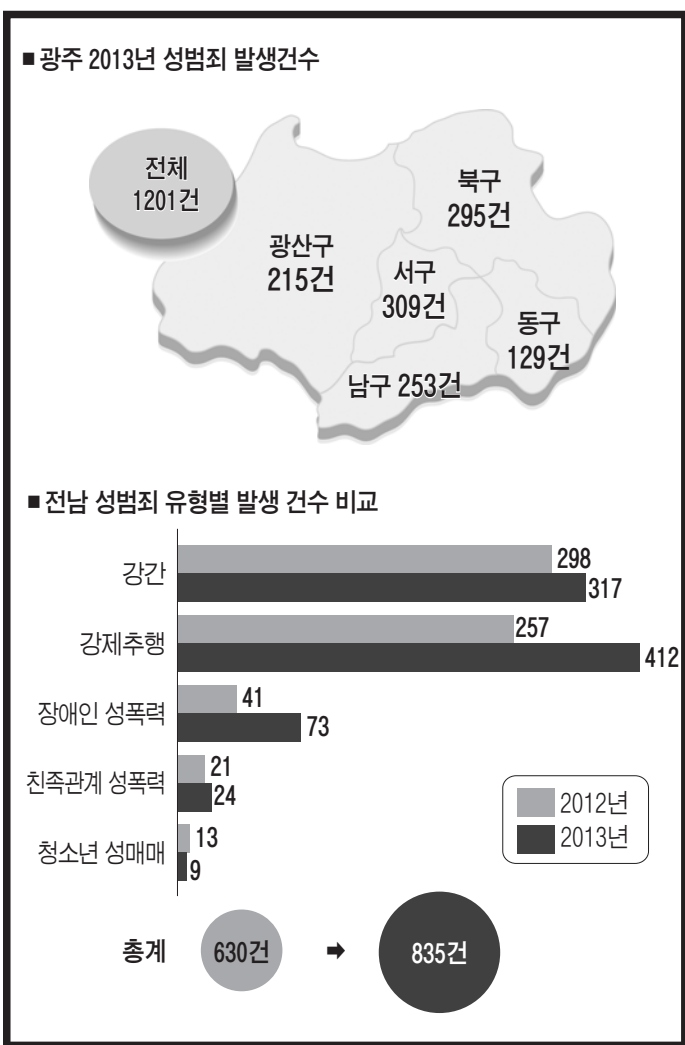
지난해 여수경찰은 성폭력 등 4대악 근절을 내세워 형광관세트 800개(280만원), 전자파차단스티커 1만5000개(525만원), 호루라기 1000개(60만원) 등에 1136만7500원을 들여 '허튼'을 썼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수 뿐 아니라 광주·전남 대부분의 경찰서가 '4대 사회악(惡) 근절'을 내세워 예산을 쏟아부은 점을 고려하면 이벤트성 전시 행정에만 치중, 정작 치안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도 비슷하다. 지난해 1201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 전년도(1003건) 보다 19%가 늘어났다. 특히 상무·급호 지구 등 유혹가가 밀집한 서부경찰 관할구역에서 성범죄(2012년 249건→ 2013년 309건)가 증가했다.

◇피해 신고도 안해=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19~64세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한 '2013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5%(2010년 2.9%)가 지난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자 중 1.1%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대답도 66.6%나 됐다.

조사 결과로만 보면 성폭력 범죄 건수 증가에 따른 경찰 입장과 사뭇 다른 해석이 나올만 하다. 경찰은 그동안 적극적인 치안 활동으로 감춰졌던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범죄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해남 출신 독립운동가 양한묵 선생 순국 정황 확인 3·1운동 체포서대문형무소 투옥 중 숨져

안정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3·1운동 피살자 명부에서 해남출신 양한묵 선생의 순국 당시 정황이 공식 확인됐다. 27일 안정행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3·1운동 95주년을 맞이해 1953년 정부가 작성한 3·1운동 당시 피살자 645명 명부의 원문 이미지를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명부 등재 인원 645명 중 광주·전남지역에서 3·1운동을 하다가 피살된 인원은 모두 26명이다.(광주일보 2월 26일자 6면) 명부엔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민족대표 중 1명인 천도교 종교지도자 양한묵 선생이 3·1운동을 하다가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1919년 7월 29일

오후 5시 순국했다는 사실도 나와 있다. 해남 육천 출신인 양한묵 선생의 순국 당시 주소는 경기 경성이었으며 나이는 39세였다. 또 완도 소안면 출신인 송내호·송기호 형제는 3·1운동 당시 광주에서 독립만세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형인 송내호는 1928년 3월 5일 복역 중, 동생인 송기호는 1926년 10월 복역 후 각각 순국했다. 한편, 3·1운동 피살자 명부의 순국 상황엔 총살부터 옥사, 칼로 타살·도살, 구타사망, 고문치사 등 피살 방법이 자세히 기록돼 있으며 읍·면별로 피살자들의 성명·나이·주소·순국일시·순국장소 등도 나와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대법, 즐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박사 집유

### “파면은 정당”...8년만에 마무리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황우석 사건’ 형사재판이 27일 대법원의 유죄선고로 8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원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던 파면처분 취소소송도 이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황 박사가 학교로 돌아가기가 어렵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즐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소의

체세포 복제기술 개발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은닉·소비하는 등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임 여성들에게 수술비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인공수정에 사용하고 남은 난자를 받아 즐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은 생명윤리법 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이루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지나쳤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백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4)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동생 최재원(51) 수석부회장은 원심처럼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 형제는 상

고심에서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항소심이 이뤄져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무렵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 항소심 선고 직전 대법원에서 전격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여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유선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 친척 병문안 갔다가 같은 병실 입원 환자 휴대전화 ‘슬쩍’



○...친척 병문안을 갔다가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휴대전화를 슬쩍한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2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2)씨는 지난 8일 새벽 0시40분께 광주시 북구 A병원 7층 병실 침대에서 잠을 자던 환자 이모(여·50)씨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갔다는 것. ○...김씨는 이날 친척 병문안을 갔다가 나오던 중 이씨의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를 훔쳤는데, 경찰은 김씨가 나가자마자 잠에서 깬 이씨의 신고를 받은 뒤 병원 복도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통해 김씨를 검거.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 대법, 첫 화학적 거세 명령 전자발찌 30년 부착

집에서 잡자던 초등학생을 이불개 낚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5)씨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리악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병했다.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명령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법정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

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2년 8월 30일 새벽 1시 30분께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잡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산 채 낚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한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 개정법을 적용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신축원룸매매(전대1분)

#### 전대상대2분상가원룸 (용봉지구코너)

신축 4층 21개(1층 상가 2칸, 2층 18개 4층 주택)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엘레베이터 완비, 최고위치 공사완료 고급주택, 정남향 (상가 원룸 위치에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수원지구상가(수익형, 확실보장)★

1층상가(17.5평) 대방5차 A후문 매가 3억 5천보2천, 월130만, 용 2억
3층상가(85평) 모이엘가 A후문 매가 3억 5천보3천, 월200만, 용 2억5천
3층상가(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 매가 2억 8천보3천, 월150만, 용 1억5천

임대

1층(18평) 대방5차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45평) 모이엘가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보3천, 월150만, 분할가

★빌리형원룸매매(쌍촌동운천역2분)★ 3천소액투자노후보장(연금처럼수익발생)

- 원룸형매매 3800만 주택 11평 (보 200만, 월 30만, 용 1,000만)
- 원룸형매매 4000만 주택 12평 (보 200만, 월 32만, 용 1,000만)
- 투룸형매매 4800만 주택 14평 (보 300만, 월 40만, 용 1,500만)
- 투룸 임대 즉시입주가 출몰선 (원룸 보 200만, 월30만/투룸 보300만, 월 40만)

(주)대신종합건설개발 ☎010-6670-9800 / 062)952-5984

### 여수 상업지 토지매매

#### 여수시 중앙동 상업지 코너

기업은행빌딩 (옛 재중병원자리) 중심상업 소풍거리

154평 (매가 8억5천) 최고위치 신축 5층 이상 가능 (건폐율 90%, 용적률 800%이상)

웃메이커, 커피숍, 편의점 신축 가능

(주)대하이앤씨 010-6670-9800 062)952-5584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 감정가이하

- 금매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4천6천 매도 11억
- 지하철 쌍촌역 4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 병의원, 사육,학원,자동차정비시설등 복합 7억 천
- 동명동 대지 318㎡(96)건물 228평 상가, 주택, 원룸등 18개 전세 1억2천천선에 월500선 9억16천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6) 4층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 2천
- 동구 대지 542㎡(164)건물 3968㎡(1200)18억 2천
- 동구 대지 923㎡(280)건물 7589㎡(2296)요양시설,병원,사육 등 복합 은행 26억 매도 41억
- 남구청 부근 대로변 병원, 요양시설등 적합 대지 1461㎡(442)6층 건물 3656㎡(1015)은행 26억 가능 매도 36억3천

#### 임대·투자

- 임대,쌍촌동용산그린아파트부근 투룸,쓰리룸 보증금 천만원에 월 30~40, 방크고 깨끗함
- 화순군 능주면 관리지역 1296㎡(392) 2천만원
- 해남군 문내면 전과 담 5557㎡(1681) 은행 6천 귀농생활에 최적합 매도는 은행인수하고 천만원
- 시골주택 담양군 봉산면 광주에서 10분거리 대지 665㎡(198)주택 162㎡(49)전원생활적합 9600만원
- 남평읍 오거리 대지 536㎡(162)은행 2천 매도 4천
- 투자, 매월통 매월저수지및 경관출을 빌라, 다세대 적합 자연 녹지 5485㎡(1659) 매도 31억5천
- 쌍촌동 구 등기소 부근 신축투룸 500에 40선에 임대 1층 가계 22평은 전채나 분할해서 임대가능함 임대조건은 타할가능함
- 아파트 화정동 우성 2차 6층 70㎡ 분할 4천 매도 8천 6백
- 쌍촌동 용산그린아파트 부근 2중 주거지 674㎡(316)디가구, 다세대 적합 공시지가 4억3천 매도 4억5천
- 삼각동 2중 주거지 618㎡(187)원룸 적합 4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판

### 희망공인중개사

고객님의성공을희망합니다

#### 상가/건물

- ▶ 삼무지구 신축건물 매 72억
- ▶ 쌍촌동 광산구 대로변 3층건물 매매 12억
- ▶ 계림동사우나건물-일부층 임대 17.5억(보8천,월8백,용9.5억 포함,직영수입 월천만)
-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구분점포 255㎡ 매 12억(보 1.3억, 월600만 유령 프렌차이즈 입점)
- ▶ 전남대 정문 신축 4층원룸건물 480㎡( 원룸11 투룸3 주인세대) 매 9.5억(보3.3억 월477만)

#### 대지/전답

- ▶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750㎡ 매매 26억
-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661㎡ 매매 14억
- ▶ 북구 용두동 대지 2,050㎡ 매매 6.9억
- ▶ 북구 문흥동 교도소부근 집중지 6,300㎡ 매매 50억
- ▶ 북구 신안동 대지 3,100㎡ 매매 36억
-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전 29,800㎡ 39억
-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전 17,000㎡ 매매 5.2억

#### 기타

-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 ▶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용 5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 환영  
서구 치평동 라인동신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 010-5536-0382 062) 373-0382

###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 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 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 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녹지(2,100㎡) 일반 공업지역(2,400㎡) 허가됨, 매매가격18억원

쌍촌동 대로점 대지(1,100㎡)건물(300㎡) 매매가격 17억원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